부킹난에 회원권값 ↑
투자 수요도 몰린다 ▶A35면

대장정 마치는 박용만 商議회장 ▶A25면
"내 역할은 청년사업가 돕는 것"

한국경제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hankyung.com
제18007호 | 대표전화 02) 360-4114

Market Index 〈주간〉 4판

코스피지수	3107.62	↗	+7.04
코스닥지수	965.11	↗	+0.80
국고채금리 (3년물, 연%)	0.996	↗	+0.001
환율 (원·달러)	1105.90	↘	-1.10
원 엔(100엔당)	1047.20		
원 유로	1337.81		
일본 닛케이	30,017.92(+497.85)		
WTI(유가)	59.24달러(-0.23)		

NH투자증권 투자, 문화가 되다

與 "언제든 원전·석탄발전 사업권 박탈"

민주, 에너지전환 지원 법률안 발의 … 민간기업 비상

'脫원전·석탄' 명분 … 이미 허가 내줬던 사업도 취소 가능
산업부도 찬성 … 전문가 "중장기 에너지정책까지 허물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정부가 '탈(脫)석탄·원전'을 앞세워 원자력·석탄발전기업의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허가를 내준 사업이더라도 정부가 민간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A3면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31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다음달 초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범여권이 180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안 제10조는 발전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엔 발전사업 지정·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보유한 '발전 면허'를 정부가 소급 적용해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전환 부담금 명목으로 원전·석탄기업에서 매년 7500억원가량을 강제로 걷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강릉안인화력 1·2호기와 삼척화력 1·2호기 건설이 중단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발전소 건립이 중단되면 수조원의 매몰비용과 함께 수천 개의 지역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발전업계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뒤집을 수 있는 법안 처리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정이 중장기 에너지정책까지 허물면서 애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에너지가 각각 짓고 있는 두 석탄발전소는 2013년 정부로부터 발전허가를 받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삼척발전소는 현 정부 출범 8개월 후인 2018년 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강경민/이지훈 기자 kkm1026@hankyung.com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지지율 5% 벽 돌파할까

정치人 탐구

정세균 국무총리

차기 대권을 향한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 총리는 작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방역 지휘에 전념하겠다"며 1년 가까이 정치와 거리를 뒀다. 그러나 올 들어선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 정책 현안에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관련기사 A5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강'을 형성한 여권 대선 주자 경쟁 구도를 흔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당 내 정세균계 인사들도 현역 국회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을 중심으로 '세 불리기'에 들어갔다. 여권에선 정 총리가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총리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1996년 47세 때 정계에 입문한 정 총리는 좀처럼 적을 만들지 않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민주당) 대표 시절 정 총리를 보좌한 한 관계자는 "지난 30년 간 대놓고 화를 내거나 거친 언사를 주고받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계파 간 갈등이 극심하던 민주당에서 정 총리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했다. 반대로 정 총리의 이런 온건한 성향이 무색무취한 직업관료 이미지를 풍겨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 총리는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실시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한길리서치, 6~8일 조사)에서 3.7%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정 총리 측근들은 "지지율 5%만 확보했으면 대권 도전이 더 빨라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권 내 정세균계 인사들은 정 총리가 '적자(嫡子) 주자'가 없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지지만 얻으면 민주당 대선 레이스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친문 세력과 40대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려면 반(反)보수 대표자란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꽃망울 터트리는 목련 제주에 봄이 왔다

21일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12~23도로 올라가 봄처럼 포근했다. 이른 봄 날씨는 22일까지 이어지다 23일부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이중섭거주지 일대에 핀 목련 꽃봉오리가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연합뉴스

명동의 눈물 … 1층 상가 67곳 중 절반 비었다

〈명동2가~명동역〉

코로나 1년 … 서울 주요상권 붕괴
수억원 하던 권리금도 0원으로

관광명소 명동·이태원, 대학가 신촌·이대 등 서울 주요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해외 관광객 감소로 침체하던 상황에서 1년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국인 발길마저 끊겼다. 거리에 있는 1층 상가 절반은 공실이고, 수억원 하던 권리금은 0원으로 떨어졌다. 폐업 비용마저 수천만원에 달해 일부 자영업자는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A8면

지난 19일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찾아간 명동 이태원 신촌·이대 상권은 문을 연 점포보다 닫은 곳이 더 많았다. 명동 상권 입구인 명동2가 눈스퀘어부터 지하철 4호선 명동역까지 500m 거리에 있는 1층 상가 67곳 중 휴업하거나 공실인 곳이 절반이 넘는 34곳에 달했다. 비싼 임차료에도 '상징성'이란 이유로 명동에 진출했던 유니클로 H&M 등 해외 의류 매장은 지난해 줄줄이 철수했다. '서울미래유산'으로 등록된 50년 노포 전주중앙회관도 지난해 7월 문을 닫았다.

지난해 한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온 이태원은 세계음식문화거리(500m) 1층 상점 36곳 중 휴·폐업한 곳이 16곳이었다.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이 줄어든 이화여대 앞도 200m 거리의 점포 57곳 가운데 47곳이 폐업이나 휴업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에서 214㎡ 규모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박진실 씨(46)는 "코로나19 이후 생긴 빚만 1억원"이라며 "매출을 다 합쳐도 고정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 남편이 배달을 해서 월세 일부를 내고 있다"고 했다.

양길성/김남영/최다은 기자 vertigo@hankyung.com

삼성, 평택 파운드리 신규라인 조기 가동

반도체 품귀 … 생산계획 앞당겨

삼성전자가 경기 평택 공장의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라인(P2)을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8인치(200㎜) 웨이퍼 반도체의 단가도 두 자릿수 인상하기로 했다. 반도체 품귀 현상과 함께 '슈퍼 사이클' 국면에 들어가면서 사업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근 공시를 통해 이 같은 공격적인 사업 계획을 밝혔다. 극자외선(EUV) 전용 라인인 경기 화성 사업장(V1)의 생산량도 늘리기로 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상반기 V1 램프업(생산량 확대)을 하고 이르면 7월부터 P2 라인을 돌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마트폰과 가전, 자동차 업체들의 '반도체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 소니 등이 반도체 부족으로 원하는 만큼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 주문이 1년 이상 꽉 찼을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생산을 맡긴 고객사에서도 공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A2면에 계속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MONEY ▶A17~23면
로앤비즈 ▶A3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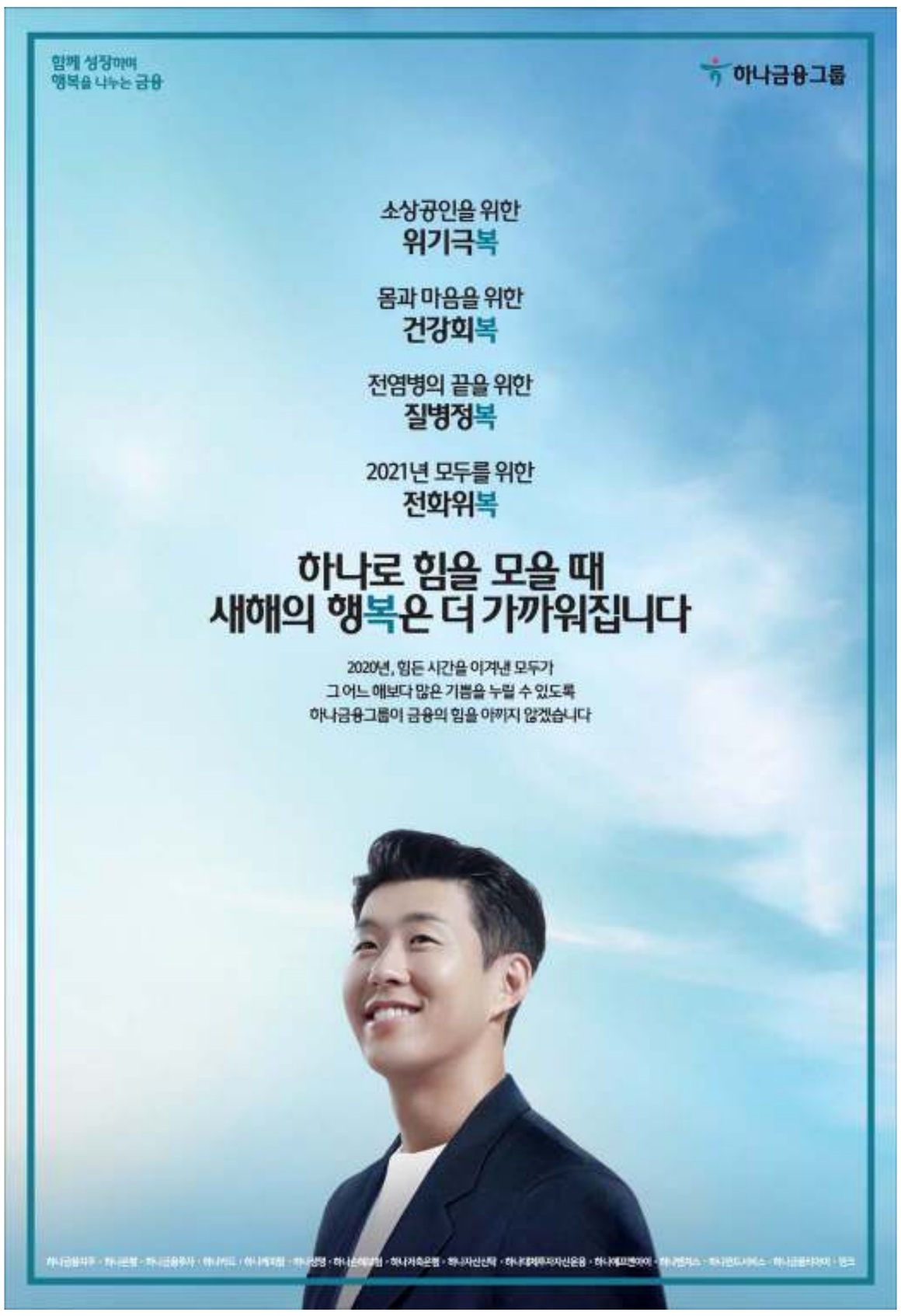
구독·배달 1577-5454

한국IB대상 종합대상

미래에셋대우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올린 투자은행(IB)에 미래에셋대우가 선정됐다. ▶관련기사 A14면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한 '제12회 한국 IB대상'에서 미래에셋대우는 주식발행(ECM), 기업공개(IPO), 채권발행(DCM) 등에서 빼어난 성적을 거둬 21일 종합대상(금융위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ECM 부문은 대한항공 유상증자 등을 주관한 한국투자증권이, DCM 부문은 8년째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KB증권이 수상자로 뽑혔다. IPO 부문은 SK바이오팜과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에 돌아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